

원불교 깨달음의 빛, 온누리에~

4월 '대각개교의 날' 맞아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행사 다채 법잔치·은혜잔치·놀이잔치 진행 어르신들에 도시락 등 나눔도 풍성



원불교 광주전남교구는 지난 28일 대각개교절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봉축기간인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제공>

법잔치, 은혜잔치, 놀이잔치 등 다채로운 한마당.

원불교 광주전남교구는 4월 대각개교(소태산대종사의 깨달음과 원불교 개교)의 빛을 맞아 각 교당 기관들이 봉축기간인 5월 5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광주동부지구를 비롯해 서부지구, 순천지구, 목포지구와 각 교당 기관들이다.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4월 28일)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가 우주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원불교를 창시한 날이다. '대각'은 진리를 크게 깨닫는 것이며 '개교'는 종교의 문을 열었다는 뜻이다.

먼저 경축기념식은 28일 오전 10시 광주교당 대각전에서 열렸다.

열타원 오도교구장의 종법사 경축사와 강기정 시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정지광 교도회장의 봉축사와 청음하모니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오교구장은 경축사에서 "정신개혁으로 낙원세상을 이루자"며 "실천하는 길로 첫째 주인 된 삶을 살고,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세 번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자"며 종법사 경축사를 대독했다.

이날 대각개교의 달 기념식을 시작으로 각 기관은 법잔치, 은혜잔치, 놀이잔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법 잔치로는 법문사경회가, 초대법회, 교리퀴즈와 경축기도가 펼쳐지며 은혜잔치로 청소년 장학금 전달, 교당기관주변이웃 레몬차 및 한방파스 나눔, 도시락 및 김치나눔, 광주전남지역 경로당 방문 및 독거노인 선물전달 등이 펼쳐진다.

놀이잔치는 WBS광주원음방송 대각개교절 특집공개방송을 비롯해 나눔문화축제, 호 보은 음악회, 농성가족한마당, 합동독도식, 성가경연대회 등이 이어진다.

오법진 사무국장은 "경축기간 내 교당과 기관

그리고 행사 장소를 방문하며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하고 때로는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원불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동안 준비해주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교구는 교정원장 방문과 교당기관 교정지도, 지구장 향단회와 단체장 회의 등의 일정을 통해 2사분기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인쇄소공인 융복합 역량 강화 지원

광주디자인진흥원, 5월 7일~9일 특화 기술대학 2기 교육생 모집

인쇄소공인을 위한 '인쇄 융·복합 특화 기술대학'이 열린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이 운영하는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인쇄 융·복합 특화 기술대학' 2기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모집은 5월 7일~5월 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총 20명. 광주

시에 있는 제조·인쇄업 소공인의 대표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무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인쇄소공인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인쇄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획됐다.

구체적인 교육은 색채학을 비롯해 편집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제작 등 3가지 과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교수들이 강의를 맡는다.

김용모 원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 인쇄 소공인들에게 실무 위주의 교육을 제공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박진연의 문화카페

지난 2020년 6월, 전국의 미술애호가들을 설레게 한 '빅뉴스'가 전해졌다. '술집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풍경 사진의 대가 마이클 케나가 전남 신안에서 전시를 연 것이다. 영국 출신의 마이클 케나는 필름 카메라를 장시간 노출시켜 촬영한 사진들을 전통적인 아날로그 흑백은염으로 인화하는 방식으로 유명한 작가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술집을 촬영한 흑백사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나무 숲을 보존하는데 기여한 인연이 있다. 글로벌 명성을 자랑하는 그가 서울도 아닌, 신안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데에는 흥미로운 사연이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신안에 머무는 등

'뮤지엄 x 즐기다'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문화자산과 다양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광주-전남에서는 신안 저녁노을 미술관과 담양우표박물관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저녁노을 미술관은 기획전 '보타니, 섬의 정원' 전시와 연계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힐링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흥미롭다. 1004개의 섬에 1개의 미술관을 건립하는 신안의 '1도(島) 1뮤지엄' 프로젝트에 맞춰 미술관의 장소성을 살린 특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성인 대상으로 '1004섬 미니 예술 정원'이 진행된다고 하니 특별한 경험이 될 듯 하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은 나들이하기에 좋은 때

뮤지엄 X 즐기다

안 수려한 풍경에 매료돼 섬 사진들을 앵글에 담은 등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바다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신안 '저녁노을 미술관'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층 규모의 소박한 건물이지만 야외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다도해는 자연이 빚어낸 바다 정원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름만큼 아름다운 미술관은 일년 내내 근사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천사대교로 가는 길목인 천사섬분재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계절 따라 피어나는 수많은 꽃과 나무, 분재를 만끽할 수 있어서다.

올 봄, 개관 11주년을 맞은 저녁노을미술관이 또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 x 즐기다'에 선정돼 5월 한달간 신안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하게 된 것이다. '급변하는 공동체,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다. 매년 이맘 때 열리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국민의 문화향유확대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엄 축제다. 인파로 넘치는 관광지도 좋지만 예술과 소통하는 미술관은 번잡한 일상으로 헛헛해진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 관광객들을 겨냥해 5월에 열리는 함평나비축제 옆 엑스포 공원에는 함평군립미술관이, 대나무 축제가 열리는 담양에는 대담 미술관과 우표박물관, 우주항공축제가 펼쳐지는 고흥에는 남포미술관이 이웃해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눈길을 주지 않았던 광주 지역 동네 미술관들을 찾는 것도 좋다. 광주 양림동의 한희원 미술관, 이강하 미술관을 비롯해 윤림동의 의재미술관, 농성동의 하정승 미술관, 광산구 최초의 동국뮤지엄 등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외로 많다. 그럼도 보고 신록도 즐기는 미술관 나들이를 떠나자.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미술시장 침체에 경매 시장 불황 지속

1분기 미술시장 보고서...9개 경매사 낙찰총액 31.8% 감소

국내 미술시장의 침체 속에 경매 시장의 불황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카이(KAAI)가 29일 내놓은 1분기 국내외 미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9개 경매사의 낙찰 총액(수수료 미포함)은 261억6000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8억1900여만 원보다 31.8%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옥션의 경우 1분기 낙찰총액이 지난해 209억원에서 올해는 89억여원으로 57.1% 감소했다. 서울옥션의 1분기 경매 횟수는 온라인 16회, 오프라인 1회 등 총 17회로 지난해 1분기(온라인 14회, 오프라인 3회)와 같았지만 상대적으로 고

가 작품이 나오는 오프라인 경매 횟수가 줄어들면서 낙찰총액이 급감했다.

반면 케이옥션의 낙찰총액은 1분기 132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7억여원보다 12.9% 증가했다.

평균 낙찰가도 케이옥션의 경우 지난해 1255만원에서 올해 2881만원으로 상승했지만 서울옥션은 3485만원에서 1305만원으로 하락했다.

9개 경매사에서 1분기 열린 53차례 경매에서 10억원 이상 고가로 낙찰된 작품은 한 점도 없었다. 1분기 경매 최고가 낙찰 작품은 1월 케이옥션에서 7억8000만원에 거래된 김환기의 '무제'였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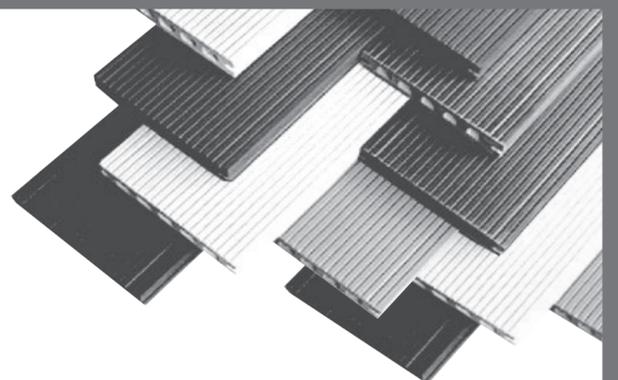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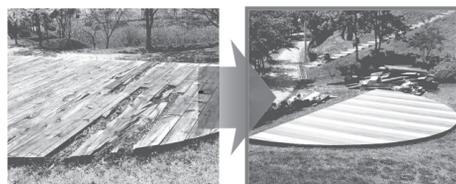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